

#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제주 토착어의 적극적인 활용

오 창 명\*

## 차 례

1. 서론
2. 국제화시대와 제주 토착어
3. 제주 토착어의 활용
4. 제주 토착어 제대로 쓰기
5. 마무리

## 1. 서론

지난 8월 초에, 문학예술연구소에서 학술행사를 하는데, “제주 토착어를 살리는 길이 국제화시대에 살아남는 길이다.”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일단 수락을 하고 꼼꼼이 생각을 해보았다.

우선 ‘제주 토착어를 살리는 길이 국제화시대에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광신적 애국주의인 국수주의에 빠진 생각이라 매도당할 것 같았다.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서 다시 생각을 해 보았다. 이 주제를 정한

---

\* 전남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사람은 아마도 무언가 급박한 상황에 쫓기는 듯한 심정으로 이러한 주제를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그랬더니 ‘제주 토착어를 살리자.’, ‘국제화시대라고 하면서 영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자.’, ‘국제화시대에 참다운 제주문화를 살리려면 제주 토착어를 살려 쓰는 것이 급선무다.’ 정도의 생각을 담은 것으로 보았다.

이 발표문에서 주제를 약간 바꾸어 제목을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제주 토착어의 적극적인 활용’이라고 정하였다. 국제화시대에 제주문화를 올바르게 담고 있는 제주 토착어를 살려 써야 하는데, 어떻게 살려 쓰면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고 효과적으로 쓰는 것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2. 국제화시대와 제주 토착어

먼저 다 아는 얘기지만, ‘국제화’라는 말과 ‘제주 토속어’라는 개념을 인식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

### 2.1 국제화

‘국제화(國際化, Internationalization)’란 ‘한 나라가 경제·환경·정치·문화적으로 다른 여러 나라와 교류하는 것’을 이른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점에서 말하는 국제화란 ‘지구화’, ‘지구화’, ‘글로벌화’, ‘세계화’를 필두로 하는 다차원적인 변화를 일컫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 보면, 국제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는 경제 부문이다.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말할 것도 없고, 제조업 부문의 생산 과정에서 외국의 기계·부품·원료·기술·디자인 등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상당 수준이며, 자본의 대외 의존도도 만만치 않다.

정치 부문에서도, 상당 부분이 남북분단이라는 조건과 그로 인하여 발

생한 국제적 연계성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문화적 국제화도 쇄국의 울타리가 무너진 이래로 끊임없이 진행되어 온 것이다. 오늘날 정보 통신의 혁명으로 인하여 그 속도가 빨라지고 범위는 더욱 넓어진 것이 분명하다. 이른바 고급문화에 해당하는 학문과 예술 분야는 물론이고 대중문화도 국제적 동질화의 물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문화적 국제화는 기술 및 경제와도 밀접하게 맞물려서 가속화되고 있다.

이처럼 국제화는 세계화·지구촌화해 가는 오늘날의 국제환경에서 필수 불가결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대외 종속의 심화, 문화적 정체성의 약화, 비생산적이고 불건전한 외래 대중문화의 유입 등의 문제가 우려되며, 그와 같은 문제들을 예방해 나갈 수 있는 대응전략들이 국제화 정책 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경제개발의 발전 전략 강구, 독자적인 기술혁신을 위한 기초과학 육성 및 외국기술 도입, 세계문화의 과감한 수용에 상응하는 우리 문화의 적극적인 해외전파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인력 양성 및 지구촌 정보 습득을 가일층 촉진시킬 것이며, 아울러 국학을 진흥시켜 외국에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도 결들여야 한다. 특히 전 국민의 국제 감각 고취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외국어 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 과정에 개선이 따라야 할 것이다.

## 2.2 국제화시대

교통과 통신, 특히 인터넷의 보급은 지구를 조그마한 마을로 만들고 있다. 국제 간의 교류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어느 한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곧바로 인근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WTO로 대표되는 자유 무역체제는 우리의 삶이 세계의 흐름과 동떨어져 살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농산물 무역자유화는 우리들의 식탁을 바꾸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리 농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어느 농촌 지역이 잘살고 못살고는 그 지역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를 국제화시대라 한다.

### 2.3 제주 토착어

잘 알다시피 ‘토착어(土着語)’라 하면 해당 언어(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을 이른다. 국어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하늘’, ‘땅’ 따위를 ‘토착어’라고 하는데, ‘외래어(外來語), 차용어(借用語), 한자어(漢字語)’ 등과 상대 개념으로 쓰인다. ‘토착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고유어(固有語)’ 또는 ‘토박이말’이라고 한다.

이 ‘토착어’라는 말에 다시 ‘제주’라는 수식어가 붙은 ‘제주 토착어’라는 말은 국어의 토속어에서 다시 ‘제주 지역 토속어’라는 뜻으로 한정된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제주 토속어’라는 개념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제주방언, 제주도방언’ 또는 ‘제주 사투리’라는 말을 써왔다.

일반적으로 국어학에서는 ‘제주방언’ 또는 ‘제주 사투리’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런데 ‘제주방언’이라는 말을 ‘제주 사투리’라는 말보다 큰 개념으로 써오고 있다. 가령 ‘제주방언’이라 하면 ‘제주도 토박이들이 전래적으로 써온 국어 전부’를 가리킨다. 이 속에는 몽골말에서 들어왔다고 하는 말 관련 어휘인 ‘적다물·적대물(절따말·적다마·赤多馬: 털빛이 붉은 말), 가라물·가래물(가라말/가라마: 털빛이 온통 검은 말), 한자어 ‘란간>난간(欄干)에서 온 말인 ‘난간·낭간(대청방이나 구들방 바깥 옆으로 좁다랗게 마루같이 죽 널을 깔아 놓은 곳. 뒷마루), 한자어 ‘대산(大蒜)에서 온 말인 ‘대산이·곱대산이·콧대산이’(마늘)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 말들은 ‘제주 토착어’라 할 수 없다. 곧 일부는 차용어에서 발달한 것이고, 일부는 한자어에서 발달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 사투리’는 제주도에서만 쓰이는, 표준어에도 없고 다른 도의 말에

도 없는 제주도 특유의 언어요소만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면 '자인 몽니가 굿어.'(저 애는 몽니가 심해.)라는 말에 쓰인 '몽니'가 포함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몽니'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심술을 부리는 성질'이라는 뜻을 가진 표준어로, '몽니를 부리다, 몽니가 굿다, 몽니가 사납다' 등의 형태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몽니'는 특유의 제주말이 아닌 것이 된다. 국어사전류에서도 대개 '사투리'를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이라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문학에서는 '토착어'라는 말과 '토속어(土俗語)'라는 말을 쓰고 있다. '토착어'는 대개 '토박이말'과 '고유어'와 같은 뜻으로 쓰여, 본디부터 그 나라나 고장에서 써 온 말을 이르고 있다. 곧 우리말을 토착어라고 볼 때 한자어, 일본어, 서구어 등의 외래어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 쓰는 것이다. 또한 영어 native 또는 aboriginal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관계가 있다.(모어화자 - native speaker)

'토속어'는 어떤 지방의 독특한 토풍(土風)을 반영하고 있는 말을 가리킨다. 이 말은 '사투리', '향토적 언어'와 가까운 개념으로, 표준어와 상대 개념으로 쓰인다. 이때의 '토속어'는 '표준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방언 곧, '비표준어(사투리)'의 뜻으로 쓴 것이다.1)

1) 국어사전류에는 '토착어'만 등재되어 있고, '토속어'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토속학(土俗學)'이라는 말이 있는데, '각 민족이나 지방에 전래되는 고유의 풍속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학문으로, 민속학과 민족학으로 분화되기 이전에 이르던 말'이라고 한다. '민속학'은 민간 생활과 결부된 신앙, 습관, 풍속, 전설, 기술, 전승 문화 따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고, '민족학'은 여러 민족의 문화를 비교·검토·연구함으로써 민족 생활의 생성·발전·본질을 밝히려는 학문이다. 후자는 '인류학'에 가깝다.

이상규(1999:11-12)는 표준어와 방언 간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살폈다.

첫째, 표준어는 정치적 이유에 의해 언어의 통합을 목표로 만든 인공적인 언어이다. 그러나 방언은 자유분방하게 분열되는 특성을 보인다.(통합성-분열성)

둘째, 표준어는 규범적인 성문화된 양식을 갖고 있다. 그에 반해 방언은 규범적인 성문화된 양식을 갖고 있지 않다.(성문화, 규범성 - 비성문화, 비규범성)

셋째, 표준어는 고정화된 변종이지만 방언은 고정된 변종이 아니다.(고정된 변종 - 고정되지 않은 변종)

넷째, 표준어는 어떤 지역이나 계층을 막론하고 동일한 나라 내에서 두루 통용

이렇게 보면 '제주 토착어'라는 말은 국어학에서 쓰는 '제주도방언' 또는 '제주방언'이란 개념보다는 좀 작은 개념으로 쓰고, '사투리'라는 개념보다는 좀 큰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위 '뭉니'는 표준어이기도 하지만 제주 토속어에도 포함된다. 이것이 제주 토박이말이기 때문이다.

### 3. 제주 토착어의 활용

문화생활에서 제주 토착어를 적극적으로 쓰자는 것은 국제화에 따른 문화적 대외 중속이 심화되는 것에 대응하고, 문화적 정체성이 약화되는 것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또한 비생산적이고 불건전한 외래 대중문화의 유입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 문화를 제대로 담고 있는 언어를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살려 써야 하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고 본다.

사실 제주 문화계에서는 제주 토착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고 본다. 제주 토착어를 활용한 소설들이 일찍부터 나왔고, 시 또한 마찬가지다. 마

---

되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방언은 지역적으로나 사회계층적으로 통용성이 제약된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통용성-비통용성)

다섯째, 표준어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낸 인위적 언어(artificial language)이지만 방언은 다듬어지지 않은 채 화자들의 지역 정서와 감정이 살아 있는 언어(living language)로서 그 정교성이라는 면에서는 표준어에 비해 뒤떨어진다.(정교성-비정교성)

여섯째, 표준어가 반드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중심 지역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사회적으로 중심지인 수도 '서울' 지역어를 그 기반으로 삼고 있다.(정치·사회 중심어-지역성, 특정 지역어)

일곱째, 표준어는 구어(oral language)뿐만 아니라 문어(written language)에 대해서도 성문화되어 있지만 방언의 문어형태는 통용성이 없거나 한정되어 있다.(문어·구어 간 양자의 비중이 비슷함. - 구어 중심, 문어 약세)

여덟째, 표준어와 방언을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은 권위(prestige)이다. 표준어는 방언이 가지고 있지 않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곧 격식적인 문어로 사용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어느 것이 표준어이고 어느 것이 방언인가가 구분된다.(권위가 있음.-권위가 없음.)

당국 대본도 일찍부터 제주 토착어를 많이 활용했다. 제주 토착어를 간직한 제주 민요 가사와 제주 무가 가사집이 일찍부터 간행되어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 관련 설화와 전설 등도 제주 토착어로 쓰여 간행되었다. 심지어는 제주 토착어로 쓰인 방언 성경도 일부 간행되었다.

최근에는 상품명에도 제주 토착어가 활용되고 있고, 상호명과 현수막, 간판 따위에도 제주 토착어를 활용하고 있다. 상품을 광고하는 광고 문안에도 제주 토착어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제주 토착어의 존재를 위태롭게 하는 요소도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다. 우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제주 토착어로 하는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제주를 책임지고 나갈 젊은이들의 머리 속에서 제주 토착어가 점차 사라지게 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아래 아(으)를 전혀 발음하지 못 한다는가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한다.

또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제화 추세에 따라 영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종 언론과 방송 매체, 심지어는 학교에서조차도 영어 지상주의가 팽배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독특한 제주 문화를 살리고 계승·발전시킴은 물론 세계에 알리자고 외치면서도 정작 제주 문화를 담고 있는 언어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것이다. 제주 지명을 예로 들어보자. 제주지명은 그야말로 제주 선인들의 사상과 감정, 사고가 반영된 것인데도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때까지 대부분 한자로 기록되었다. 오늘날 지도는 대부분 일제강점기 때의 것들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다 보니 제주지명의 본 모습을 왜곡한 것이 수두룩하다.

다음에서 제주 토착어를 활용한 예들을 몇 개 보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제주 토착어를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 3.1 문학작품

문학작품에서 제주 토착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소설 속의 지문이나 대화에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 소설을 보면 지문 속에서는 토착어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거나 못하고 있다. 고작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화 속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시의 경우는, 소설보다도 적극적으로 방언을 활용한 경우가 몇 있다. 곧 시 속에서 어휘 또는 문장 또는 시 전체를 제주 방언으로 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것은 장르상의 차이와 표현상에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3.1.1 소설

제주 토착어를 소설에 활용하는 작가는 대개 제주 출신의 소설가이거나 제주를 다녀갔던 일부 도외 출신 소설가들이다. 제주 출신 소설가로는 오성찬, 현기영, 현길언, 고시홍 등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현길언의 소설에 쓰인 제주 토착어를 몇 개 보이도록 한다. 다음은 현길언의 단편소설 「우리들의 조부님」에서 뽑은 대화들이다.

“아, 여보 얼마 만이라. 그동안 고생이 말이 아니었주?”

“난 집을 떠난 후 이리저리 떠돌아 댕기다가 다시 이렇게 와서. 참 세수를 해야크라. 물을 좀 주어.”

“난 이제 잠을 좀 자야크라.”

“삼촌님, 저 양 구장네 집엘 다녀오쿠다.”

“아니 양 구장도 모르쿠과. 그 넓은드르 양 구장 말이우다.”

“그 아들을 만남 내가 양 구장을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야 허쿠다.”

“날 모르크라. 나야 나. 신규라.”

“삼촌님, 전 결코 구장을 죽이지 않았수다.”



“성님, 정신을 차리십서. 무슨 말을 경 허염쑈과. 이제 다 잊어버린 걸 무사 다시 시작허염쑈과.”

“무슨 곳 말이우파. 내가 구장을 안 죽였다는 것만 알아주민 됩니다. 난 공비가 아니우다.”

“희빈아, 저 앞동산으로 가자. 그리고 삼촌님, 길삼이를 글로 보내 주십서. 꼭 마지막으로 혈말이 있수다.”

<현길언의 「우리들의 조부님」에서>

다음은 현길언의 장편소설 『女子의 江』에서 뽑은 대화들이다.

“잠서. 나라.”

“잠깐 기다립서.”

“불을 켜지 마라.”

“나 혈 이야기가 있어.”

“미안허여. 이런 때 아니른 시간이 어선.”

“난 명자를 오래 전부터 좋아해서.”

“이리 앉아 천천히 말협서.”

“실례인 줄 알지마는 어떻혈 수가 어서, 명자를 내 사름으로 만들젠 허난 영 염치없어도.”

“난 죽은 목숨이우다.”

“경 말허는 게 아니라. 난 지금 양형사가 아니고, 명자를 좋아하는 양순택이라는 남자라. 좋아하는 여자에게 허는 내 진심을 받아주어.”

“알았수다. 오늘이랑 돌아가십서. 난 아직 흰머리창을 하고 있는 상제우다. 아무리 화냥년이라 해도 머리창이나 풀어야 혈 거 아니우파.”

“알아서. 오늘 저녁은 돌아가크라. 그러나 내 마음을 받아준 것으로 알 것이니 그리 알아뒤.”

“난 흰머리창을 헌 여자우다.”

“이 설른 아기가. 느 어떻허젠 험디(\*필자: ‘험디’의 잘못된듯 함.).”

“는 남자 없이 못살 팔자여. 지금 때가 어떤 뎨지 알암시나. 사름 목숨이 파리목숨이여.”

“아이에게 젓이나 먹이쿠다.”

“자는 아일 깨울 거냐?”

“그냥 자라. 내일 이야기허자.”

“자는 아이 깨울라.”

“이제랑 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십서.”

『女子의 江-하』(1992:34-36)

### 3.1.2 시

필자가 본 제주 토속어로 쓴 시집은 김광협의 『돌하르방 어디 감수광』(1984), 김용해의 『혼저 읍서계』(1992), 『그리운 제주도』(1995), 『제주도 사투리』(1995), 김종두의 『사는 게 뭇 산디』(2000), 고정국의 『지만 울단 장쿨래기』 등이 있다.

다음은 김종두의 『사는 게 뭇산디』의 한 시이다.

#### 사는 게 뭇산디 1

사름 사는 일은  
험한 산을 오르는 거여.  
이녁만 씹  
인생의 탐을 쌓아 가는 거여.

으남 속을 걷는 나그네.  
서두르지 말라.  
허천도 보지 말곡  
쉬이 낙담도 흐지 말앙  
꼬닥꼬닥 걸으라.

가시덤불 속도 해매 보곡  
내창질 푸더지멍 땡기당  
물도 기리곡 배도 고파 봐사

시상 물정도 아느네.

발바닥 붕물게 나상 댕겨보곡  
손바닥 핑이지게 살아 봐사  
어려움도 알곡  
고마운줄도 아느네.

산을 오르면  
이내 해는 저블곡  
탐을 쌓고 나면  
우리의 육신은 깃털이 되고 말주만  
버친 삶 짙어정 살아 온 땀과 눈물  
이게 우리가 살아 온 보람이여.  
이게 사름 사는 거여.

「사는 게 뭇 산디 1」(2000:39-39)

지난해에 제주 출신의 고정국 시인의 '제주사투리로 엮어낸 50년대 고향이야기'인 『지만 올단 장쿨래기』라는 시집을 냈다. 제주 토착어로 엮어낸 몇 안 되는 시집 중 하나로,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책의 시 하나를 예로 든다.

#### 호룩호룩 장쿨래기-도마뱀의 지혜

올단 / 장쿨래기 / 호룩호룩 / 장쿨래기  
알곳이 / 새경 바리멍 / 등치기루 / 거시당보민  
돌 우이 / 파들락파들락 / 짚랑지만 / 들락키국  
(“올단 장쿨래기, 호룩호룩 장쿨래기” / 짓긋게 한눈을 팔며 낮 등으로 건드리다보면 / 돌 위에 ‘파들락파들락’ 꼬리만 남아 혼자 튀고)

「호룩호룩 장쿨래기」(2004:181)

### 3.1.3 희곡

희곡 대본을 제주 토착어로 쓰는 경우도 많다. 특히 근래에 제주사투리 경연대회를 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 일반에서도 제주 토착어로 된 대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00년에는 김경훈 마당극 대본집인 『살짜기 읍서예』가 책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에는 9편의 마당극 대본이 실려 있는데, 대부분 제주 관련 마당극이기 때문에 지문을 제외한 독백이나 대화문은 대부분 제주 토착어로 쓰였다.

이 중 「살짜기 읍서예」의 일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잰이: 택시! 택시!

기사: 어디 감수과?

경찰: 공항 가게마썸.

기사: 출발이우파? 도착이우파?

경찰: 출발마썸.

기사: 답서. 출발!

(중략)

허남섭: 형님, 여기서 우릴 죽이젠 허는 모양이우다.

허남익: 우리 형제가 한날 한시에 죽업고나.

허남섭: 우리 다 죽어볼든, 부모님은 누게 이성 돌봐줄건고….

(중략)

할망: 해삼 한 사라 먹고 가세요. 싸게 줄테니 명게, 오분재기, 소라 한 접시 먹고 가세요.

신랑: 야, 이거 해삼 아니여?

기사: 이건 이 동네 해녀들이 직접 바다에서 잡은 겁니다.

신부: 야, 명게가 이따만 하네. 자기야 우리 먹고 가자.

기사: 아주망! 해삼, 명게, 오분재기영 끌고루 섞엉 한 접시만 줘서.

할망: 경험서.(간단한 동작)

신랑: (한입 먹으며)음, 되게 크고 맛있네.

할망: 그럴 사연이 이수다. 예부터 이 정방폭포 앞 바당은 괴길 잡아봐도  
큰큰하고, 소라, 전복을 잡아도 물애기 대갈통만하게 요른 놈밖에 잇수다.

신부: 벌써 다 먹었네. 야 너무 맛있는 거 있지?

신랑:(할망에게 제주 사투리를 흉내내며) 자, 여기 이수다. 많이 파세유.

신부: 다음은 어디로 가죠?

기사: 골으민 알아지쿠과?

『살짜기 읍서예』(2000:31. 33. 39-40)

### 3.1.4 성경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한 경우는 특이하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서양의 성경을 들여와서 우리말로 번역한 것에 대비할 만한 것이다.

1981년에 『제주방언성경 마가복음』이 나왔다. 제주향토문화연구소에서 진성기 제주도민속박물관장에게 의뢰하여 만든 것이다.

그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귀먹은 반모르기를 구완호신 예수

그 뒤 예수께서는 띠로 지방을 터난 시돈에 들르셨단 데카폴리스 지방을  
거친 갈릴래아 호수로 돌아오셨쑤다. 그 때에 사름들이 귀먹은 반모르기를  
예수께 드란 오나 그 사름안티 손을 대여 주시기를 청호였쑤다. 예수께서는  
그 사름을 하근 사름들 스이에서 뜨로 불러내연 송가락을 그 사름의 귀 속  
에 놓앗단 춤을 볼란 그 사름의 새예 대연 하늘을 브래명 한숨을 내신 대음  
“에파타”

호연 말씀호셨쑤다.

“올랜”

호 뜻이랏쑤다. 그영호연 그 사름은 귀가 올리고 새가 패와전 말을 제대  
로 궂게 되었쑤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안티도 궂지 말랜 엄호게 이르시  
여도 그영호수록 사름들은 더욱더 널리 소문을 내왔쑤다.

사름들은

“귀막쉬를 듣게 흐시고 모르기를 말을 갖게 흐시난 그 분이 흐시는 일은 놀랍기만 흐구나.”

흐명 경탄흐지 아니 흘 수 엇엿쑤다.

『제주방언성경 마가복음』(1981:51)

이 외에 제주 토착어로 된 제주 민요 가사, 설화와 전설, 무가 가사, 동요 가사, 제주 속담 등을 채록하고 그것을 책으로 간행한 것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sup>2)</sup>

## 3.2 기타

### 3.2.1 광고

제주를 찾는 사람들이 공항 입구나 마을 어귀에서 흔히 보는 것이 하나 있다.

‘혼저 읍서예’, ‘혼저읍서예’, ‘혼저 읍서양’, ‘혼저 읍서양’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나가는 곳에 세워진 ‘잘 감서예’, ‘잘 감서양’ / ‘다시 읍서예’, ‘또 읍서예’, ‘다시 읍서양’, ‘또 읍서양’, ‘뜨시 읍서양’, ‘또시 읍서양’ 등과 대비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제주인들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배울할 때 ‘조심혜영 잘 감서’라고 하는 말 뒤에 ‘예’ 또는 ‘양’을 덧붙이는 것이 한 특징이다. 이 ‘양’과 ‘예’는 존대할 자리에 붙어서 채처(재촉하거나 다그쳐서) 물을 때 쓰는 말이다. 그래서 ‘조심혜영 감서,

---

2) 이러한 책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김영돈(1965), 『제주도 민요 연구-상』, 일조각.

윤치부(1999), 『제주전래동요사전』, 민속원.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1985), 『제주설화집성(1)』.

제주도(1999), 『제주도속담사전』.

진성기(1991),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현용준(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양, ‘잘 갑서, 양’ / ‘조심헤영 갑서, 예’, ‘잘 갑서, 예’ / ‘다시 읍서, 예’, ‘뜨시 읍서, 예’ / ‘다시 읍서, 양’, ‘뜨시 읍서, 양’, ‘또시 읍서, 양’ 등과 같이 쓴다.

그런데 손님이 들어올 때는 표준어 ‘어서 오십시오.’에 대응하는 말로 ‘흔저 읍서 / 흔저 읍서’를 쓴다. 사실 이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표준어 ‘어서’는 ‘일이나 행동을 지체 없이 빨리 하기를 재촉하는 말’ 또는 ‘반갑게 맞아들이거나 간절히 권하는 말’로 쓰인다. 제주 토착어 ‘흔저 / 흔저 / 현저’는 ‘어서 빨리’라는 뜻이 강하다. 그래서 반갑게 맞아들이는 말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 이 말을 쓴다고 억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 말 뒤에 ‘존대할 자리에 붙어서 채쳐 묻는 말’인 ‘예’나 ‘양’을 쓸 수는 없다. 들어오는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는데 채쳐 묻는 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어서 읍서예’도 보이니, 안타까울 뿐이다. 이것은 ‘흔저’가 이상해서 ‘어서’를 붙인 것일 것이다.

요즘은 관광지 입구나 토산품 점 입구, 음식점 입구, 신문 광고 등에 다음과 같은 문구들이 써 있는 것을 꽤 보게 된다. 그런데 그 문구들 대두분은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이 많다.

“왕방 드렁 강 ㄹ릅서.” ⇒ “왕 방(뽕) 들렁 강 굴읍서.”

“왕 뽕 강 ㄹ릅서.” ⇒ “왕 뽕 강 굴읍서.”

“잘 뽕데강, 잘 갑씨양.” ⇒ “잘 뽕데강, 잘 갑서, 양.”

“춧좌쨩 고맙쑤다.” ⇒ “춧아쨩 고맙쑤다.”

“춧자왕쨩 고맙쑤다양.” ⇒ “춧아와 쨩 고맙쑤다. 양.”

“하영 들어왕 뽕씨 댜막 잇쑤다.” ⇒ “하영 들어왕 뽕씨. 댜막 잇쑤다.”

“올 여름 무척 덥덴 햅신게” ⇒ “올여름 무척 덥덴 햅신게.”

“하이마트에 다 있던 햅신게. 가방 조으른 하나 달주게.” ⇒ “하이마트에 다 있던 햅신게. 가 뽕 좋으른 하나 돌주게.”

“읍데강! 흔저읍서!” ⇒ “읍데강, 흔저 읍서.”

“귀소문 말앙 눈소문 허렌 헛쑤다.” ⇒ “귀소문 말앙 눈소문 허렌 헛수

다.”

최근에는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서부관광도로를 비롯한 11곳의 도로에 제주 도착어를 활용한 교통안전홍보판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신선감을 주고 있다. 2개만 들어 본다.

“옴데강 천천히 덩깍씨.” ⇒ “옴데강? 천천히 덩깍서.”

“무사경 빠르팡 서둘지맘씨.” ⇒ “무사 경 빠르팡? 서둘지 맘서.”

### 3.2.2 현수막

최근에 제주에서 행정자치구조에 대한 도민 투표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투표를 알리는 현수막에 제주 도착어를 활용하여 눈길을 끌었다.

“아멩 바빠도 꼭 투표협씨양”

‘꼭’을 ‘뚝’으로 썼으면 더 완벽했을 텐데. 하지만 아쉬움보다는 제주 도착어를 활용했다는 데 더 큰 의의를 두고 싶다.

### 3.2.3 상호명

상호명으로 제주 도착어를 활용한 경우도 많다. 유난히 정감을 느끼는 것은 나만일까?

제주 갈옷 전문점에 ‘몬딱’이라는 상호가 있다. 좀 더 도착어의 느낌을 주려면 ‘몬딱’, ‘민’ 정도를 써도 될 것 같다.

빵집 상호로 ‘ㄱ튼올레빵집’도 있다. ‘출입구가 같은 빵집’ 정도의 뜻을 가진 말이다.

음식점 상호로 ‘올레·올레’가 있고, ‘재라한’도 있다. ‘재라한’은 ‘재라흔 거·재라헌 거’에서 따온 이름이다.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도뚜리식당’도 있다. ‘도뚜리’는 ‘돼지’를 이르는 제주방언 ‘돛’에 고유어 ‘우리’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옹데강 숯불갈비’, ‘긴당네 숯불갈비’도 있다. ‘긴당네’는 ‘켄당네’로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옹데강’은 상호로 많이 쓰이는 토속어 중 하나다. ‘옹데강’ 갈비집을 비롯하여 ‘옹데강’ 기념품점, ‘옹데강노래연습장’, ‘옹데강 농산물직매장’, ‘옹데강농수산마트’ 등이 있다. 사실 ‘켄당’은 한자어 眷黨에서 온 말로 보이므로, 토착어라 하기보다는 토속어라 해야 할 것이다.

‘ㄷㄴ리토산품직매장’도 있다. ‘ㄷㄴ리’는 ‘도고리’로 썼으면 한다. ‘돌도고리’와 ‘남도고리’ 등이 있다.

### 3.2.4 식품과 식육

최근에 식품이나 식육에도 제주 토착어를 살려 쓰는 경우가 많다. 롯데에서 만든 ‘ㄷ새기’가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표기에 신중을 기해 썼으면 하는 것이다. 곧 ‘ㄷ새기’가 아니라 ‘도새기’가 일반적인 토착어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도야지’, ‘돼야지’도 쓰이고 있다.

제주 공항에서 판매하는 감귤을 활용하여 만든 상품 중에 ‘하르방’이라는 것이 있다. 아쉬운 것은 ‘하르방’으로 썼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 3.2.5 서예

최근에는 서예동호인들이 서예의 대상을 제주 토착어에서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표적인 것이 사단법인 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의 <제주말씨 우리글서예전>을 들 수 있다. 올해 7월까지 11회에 걸쳐 제주 토착어 전시회를 열었다.

몇 개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붓대 심엉 글씨 씬은 선비님네 홀 일이어.  
쟁기 심엉 밭 갈기는 농부안이 홀 일이어.  
물도 쓰민 여율이 나곡 낭도 쓰민 ㄱ들이 난다.  
대툽 심엉 낭 오립은 우리님네 홀 일이어.

<제주도 민요 중 하나/현병찬 작품에서>

할망 해 준 감저 범벅 멩탱이에 정 웃드르래 여섯 참 질 걸엉 출 흐래 가  
민 범벅 혼 번 아상 먹곡 출래 혼 번 즈방 먹곡 개역 탄 물 혼 번 드르싸곡  
흐멍 출 해십주.

<부정립 작품에서>

우리 어멍 가는 디랑 물멍지로 드릴 놓서.  
다심 어멍 가는 디랑 썰거리낭 드릴 놓서.

<비념 중 하나/김두승 작품에서>

### 3.2.6 마을 이름

최근 들어 마을 어귀에 마을을 안내하는 꽃돌을 세우는 곳이 많아졌다. 제주도 마을 이름 대부분은 고유어로 이루어진 것인데, 특히 아래 아(·)를 보유한 이름도 몇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의 옛 이름이다. 이 마을의 옛 이름은 ‘드리’라고 한다. 이 ‘드리’는 발음하는 사람에 따라 ‘더리’ 또는 ‘도리’로도 실현된다. 최근에 이 마을 어귀에 꽃돌을 세웠는데, ‘드리’로 표기해놓았다. 이 ‘드리’를 한자 차용 표기로 쓴 것이 橋來(교래)인데 오늘날은 이것은 한자음 그대로 읽어서 ‘교래’, ‘교래리’라고 하고 있다.

제주시 오등동의 한 동네로 ‘ㄱ다시’라는 곳이 있다. 이 마을 어귀의 꽃돌에도 ‘ㄱ다시’로 표기했다. 이 ‘ㄱ다시’는 발음하는 사람에 따라 ‘고다시’로 실현되기도 한다. 틀린 발음 ‘가다시’로는 발음하지는 않는데, 일부 표지판에 ‘가다시’로 적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기도 한다. ‘ㄱ다시’를 한자 차용 표기로 쓴 것이 並多洞(병다동)이다. 이로 볼 때, ‘ㄱ다시’의 첫 소리 ‘ㄱ’는 중세국어 ‘躡(並)’과 제주방언 ‘굽’과 관련된 것으로 짐작된다.



ㄱ, ㄷ, ㅃ, ㅍ, ㅈ

ㅅ, ㅆ, ㅊ, ㅋ, ㆁ, ㆁ, ㆁ, ㆁ, ㆁ, ㆁ

이 글자를 운용할 때는 글자 운용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글자 운용 원칙에는 고려할 것이 있다.

첫째, 한글 자모는 초성, 중성, 종성을 로마자처럼 한 줄로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음절을 단위로 그것을 모아쓰는 표기를 하고 있다. 곧 ‘음절 단위로 모아쓰도록 하고 있다.

둘째,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데, 소리 나는 대로 쓸 것이냐 형태를 밝혀 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제주어 표기법>에서도 “제1항 제주어 표기법은 ‘한글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2항 제주어에서 한 가지 의미의 말이 둘 이상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기 대상으로 삼는다.”고 한 항목을 추가했다.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규정 같지만, 실제 표기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위 고정국의 시집을 보면, 시집 제목에서는 ‘장쿨래기’라 했는데, 시에서는 ‘호륙호륙 장쿨래기’로 썼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석주명의 『제주도 방언집』을 보면, 표준어 ‘도마뱀’에 대응하는 제주방언으로 ‘장쿨내비, 장쿨내비, 장쿨애비, 독다귀’ 등이 있다고 했다. 박용후의 『제주 방언연구(자료편)』에는 ‘도마뱀’의 제주방언으로 ‘독다구리, 독다귀, 장쿨래비’를 등재했다. 현평효의 『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에는 ‘도마뱀’의 제주방언으로 ‘독다귀, 독다귀, 독다구리, 장쿨래비, 장칼래비, 장쿨래비’가 등재되어 있다. 위 세 개의 사전에서 확인할 수 없는 ‘장쿨래기·장쿨래기’

3) 『제주어사전』(1996)의 ‘제주어 표기법’에 따르면, “제3항 제주어 표기에 쓰일 글자는 한글 스물네 자 외에 ‘ㅇ’와 ‘으’ 두 자를 추가하되, ‘ㅣ(이)’ 다음에 배열하고, 이름은 ‘ㅇ’와 ‘으’로 정한다.”고 했다.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ㅇ’ 다음에 ‘으’를 두고, 그 다음에 ‘으’를 두고 있다.

가 있으니, ‘장쿨래비’의 후대형으로 봐야 할지, ‘장쿨래비’의 변이형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장쿨래비’의 잘못으로 봐야 할지 판단이 쉽지 않다. ‘장쿨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의 어휘가 추가되어야 한다. 그런데 1940-50년대 조사에서 ‘장쿨래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판단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제주어를 완벽하게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는 한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을 겸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제주어도 한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모음에 ‘으’와 ‘으’와 같은 것이 있고, 동사의 활용형 중에 표준어와 달리 활용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령 동사 활용형의 경우 표준어는 ‘모르다’만 상정하고, 뒤에 자음어미가 연결되면 ‘모르고, 모르니’와 같이 활용하지만, 뒤에 모음어미가 연결되면 ‘몰라, 몰라서’와 같이 활용한다. 이에 대해서 <한글 맞춤법>에 ‘제4절 형태에 관한 것’ ‘제18항’의 9에 “어간의 끝 음절 ‘르’의 ‘-’가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러’로 바뀔 적”에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고 했다.

그런데 ‘모르다’에 대응하는 제주 토착어는 ‘모르다’와 ‘몰르다’가 있다. ‘모르다’의 활용형은 ‘모르고, 모르니 / 몰라, 몰라서’와 같이 되고, ‘몰르다’의 활용형은 ‘몰르고, 몰르니 / 몰라, 몰라서’와 같이 된다.

이와 같이 <한글 맞춤법> 규정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는데, 아직 제주도 차원에서 정한 표기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에서 많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한글 맞춤법>이 있어도 글쓰기 혼란이 일어난데, <제주어 표기법>도 마찬가지로 아니냐고 한다. 그것은 큰 오산이다. 한정된 글자를 사용할 때는 최소한 지켜야 할 글자 운용법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어느 정도 지켜야 글자 생활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5. 마무리

주어진 주제가 “제주 토착어를 살리는 길이 국제화시대에 살아남는 길이다.”라는 것이었지만, 필자는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제주 토착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제주 문화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글을 전개했다.

제주 토착어를 살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능하면 제주 토착어로 자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가능하면 자주 글로 쓰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말로 하는 것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글로 쓰는 것에 비중을 두어 언급했다. 그것은 글로 쓰는 것은 곧 말로 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리고 글을 쓰는 데 적극적으로 제주 토착어를 활용하는 것이 제주 문화를 올바르게 계승하고 전승하는 길임을 천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끝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제주 토속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늘 제주 토속어를 써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6살짜리 꼬마가 어느 날 딱지를 들고 왔다. 돈을 주지 않았으니까 사지는 못했을 것이고-. 돈을 훔쳐서 샀나 하고, 어디서 났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대답하는 말이 걸작이다. “오단 길에서 봉차안-.”(오다가 길에서 주웠어요.)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말은 의식적으로 배우는 것도 많지만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제주도민이 제주도말을 쓰지 않으면 제주도말은 없어질 것이 자명하다.

“매날 멍심헌영 네겨시민 좋구다.”

“우리만이라도 멍심헌영 네기게마썸.”

- 핵심어: 제주 토착어, 제주 토속어, 국제화시대, 제주방언, 제주도방언, 제주사투리

<참고문헌>

- 고정국(2004), 『지만 올단 장쿨래기』, 도서출판 각.
- 김경훈(2000), 『김경훈 마당극 대본집: 살짜기 읍서예』, 도서출판 각.
- 박용후(1961, 1988), 『제주방언연구(자료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석주명(1947),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출판부.
- 사단법인 제주도한글사랑서예모임(2001), 『제7회 제주말씨우리글서예전』.
- 오창명(2001), “제주도 영어 공용어화, 과연 능사인가?”, 『제주작가』 제7호(2001년 하반기), 실천문학사.
- 이상규(1999), 『방언학』, 학연사.
- 이익섭(1984), 『방언학』, 민음사.
- 제주도(1995), 『제주어사전』.
- 제주문인협회(1996-1998), 『제주문학전집 I-VII』.
- 제주향토문화연구소 편(1981), 『제주방언성경: 마가복음』, 보이스사.
- 현길언(1992), 『女子의 江-상, 하』, 한길사.
- 현평효(1962, 1985), 『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 태학사.

<Abstract>

Active Use of Jeju Dialect in the Internationalization Times

Oh, Chang-Myeong

This paper discusses the fact that Jeju local language which reflects the real culture of Jeju should be widely used as well as how it can be actively and effectively used.

There are two ways to preserve the indigenous Jeju language. One is to communicate using the indigenous language frequently and another is to write in as the indigenous language much as possible.

This paper does not touch on the former but focuses on the latter because writing reflects speaking and the proper way to inherit and hand down the culture of Jeju can be possible when the indigenous language is used for writing.

The fac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more of language is learnt unconsciously than consciously. It is evident that Jeju dialect could disappear if it is not written by the local residents.

- Key Words: the Indigenous Jeju language, Jeju local language, the Internationalization Times, Jeju dialect